



정부, 전남광주특별시에 반도체 기업 800조 투자 계획 발표

# 소외된 지역들 반발... 제주 정치권은 ‘조용’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반도체 기업 800조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뒤 전국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제주 국회의원들과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아무런 입장으로 내지 않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제주가 이번 투자 계획에서 완전히 소외됐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향후 추진될 공공기관 이전 등 다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입장을 한 번 더 고려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안이한 대응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대한민

국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남광주특별시에 총 8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팹 4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충청권은 첨단 패키징 거점, 동남·대구경북권은 반도체 소부장 혁신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 설치 계획도 제시됐다. SK는 울산(1GW), GS는 동해(2.4GW), 네이버 세종(1GW)이 AI 데이터센터 설치에 나선다.

전남광주특별시는 환호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과 협력업체가 들어서면 청년 일자리 확대와 기업유치, 상권활성화, 인구 유입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투자 계획의 최대 수혜 지역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불만 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PK) 지역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전략산업은 표심이 아니라 지역의 역량과 경쟁력으로 입지가 결정돼야 한다”며 선정 배경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저희는 호남의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지역이든 성장할 필요와 권리가 있다.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하다”며 “하지만 균형발전의 이름으로

국가전략산업의 입지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야권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다. 당초 호남 프로젝트로 알려졌던 이번 투자계획이 사실상 전남광주특별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자 여당 텃밭인 전북특별자치도도 반발하고 있다. 전북 지역은 새만금에 현대차가 이미 투자 계획은 밝힌 상태임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5일 전북도의회·국민의힘 전북도당·민선 9기 인수위원회는 “수백조원 투자가 전북을 제외한 광주·전남에만 집중된다면 국가균형발전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처사”라고 직격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4년간의 임기를 마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달 30일 퇴임 행사 후 도청 현관 앞에서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도청을 떠나고 있다. 제주도청 제공

##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지사 어제 퇴임 “제주 발전 여정 늘 함께할 것”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달 30일 퇴임식을 갖고 4년 간의 임기를 마쳤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퇴임 기념 식수식과 사무 인계·인수식, 공식 퇴임식 등을 차례로 진행했다.

오 지사는 퇴임사에서 “지난 1461일 동안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새로 내겠다는 도전 정신으로 전 부서가 혁신에 동참했고, 모두가 성과를 내는 역동적인 조직으로 체질을 바꿨다”며 “공직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협업한 덕분에 중앙 단위 공모·평가에서 135건의 최우수 성과를 거두며 제주의 정책 역량을 입증했다”고 공직자들에게 감

사를 전했다.

이어 “변화의 결실을 도민이 온전히 체감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주의 미래를 향한 변함 없는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도지사의 역할은 마무리하지만, 제주의 더 큰 발전을 위한 여정에서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퇴임행사를 마친 오 지사는 도청 현관 앞에서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도청을 떠났다. 이후 국립제주호국원, 제주4·3평화공원, 창열사를 차례로 찾아 참배하며 4년간의 제주도지사 임기를 마감했다. 또 공식 퇴임식에 앞서 삼성혈도 찾아 참배했다. 이상민기자

## 도, 여름철 재난 정보 알림서비스 홍보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해 제주 재난안전문자 등 자체 재난정보 알림서비스 운영과 홍보를 강화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난정보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도는 2024년부터 기존 휴대전화 문자 방식으로 운영하던 제주 재난안전문자를 카카오톡 알림톡 방식으로 전환해 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행동요령 등을 함께 제공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인공지능(AI) 기반 수어영상서

비스와 재난정보를 휴대전화 음성으로 안내하는 모바일 재난방송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제주 재난안전문자 알림톡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누리집에서 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수어영상과 모바일 재난방송서비스 이용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한국 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지회, 수어통역센터 등 유관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를 통해 제주 재난안전문자를 비롯해 수어영상서비스와 모바일 재난방송서비스 가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소범기자



제주 해안길 따라 국토대장정 지난달 30일 제주도 국토대장정에 나선 다른 지방 대학생들이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도로를 걷고 있다. 강희만기자

## ‘중기제품 한데 모아 보관·관리’ 공동물류센터 건립

총 사업비 256억원 투입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

제주지역 중소 제조기업 제품을 한데 모아 보관하고 운송하는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가 건립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한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섬 지역 특성상 물류비 부담이 큰 도내 제조기업의 제품을 공동으로 보관·관리·운송할 수 있는 곳으로 제주시 아라동 일원에 연면적 5600㎡,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 사업비는 총 256억원이 투입됐다.

지상 1층에는 저온 창고, 지상 2층에는 상온창고를 각각 갖추고 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과

농산물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제조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9월까지 입출고와 재고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창고관리시스템(WMS)과 차량 배차·운송 경로를 관리하는 운송관리시스템(TMS)을 구축하고, 시설과 장비 전반에 대한 시운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센터 운영은 제주경제통상진흥

원이 맡는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시설관리와 물류 운영을 담당할 조직과 인력 구성을 마친 뒤 센터 운영에 나선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도내 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 기반시설”이라며 “시스템 구축과 시운전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서귀포시 공고 제2026-1938호

## 분묘 개장 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분묘의 연고자가 없는 경우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2026. 7.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소재지        | 기수 | 비고 |
|------------|----|----|
| 월평동 102번지  | 1기 |    |
| 월평동 27-1번지 | 2기 |    |

2. 개장사유: 토지정리 및 재산권행사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서귀포시 돈내코로 295-28, 서귀포추모공원 봉안당

○ 안치기간: 안치일로부터 5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연고자가 없는 경우: 공고기간 경과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장

5.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2026. 5. 13~ 2026. 8. 12.)

6. 공고인 및 문의처

○ 공고인: 서귀포시장(도시과) 서귀포시 중앙로 105, 별관 5층 도시과(064-760-2982)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064)760-6522

7. 신고 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 할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기타 증빙서류 등)

8. 기타사항: 개장 전 식별이 현저히 어려운 ‘합장 분묘’의 경우, 부득이 이 공고로 분묘 개장공고를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2차)를 합니다.

2026. 7. 1.

그랜드보청기

## 24시간 상담/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보청기 고객감사 특별할인!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2021 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충전형 귀속형 보청기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샅샅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검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서비스터미널

그랜드보청기

##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